

유가 고공행진에 산업계 희비... 정유 '웃고', 석화 '울고'

정유사, 정제마진 사상 최고치
역대급 호황기에 호실적 전망
석유화학업계, 원가 부담 심화
화물파업으로 운송차질 피해도

치솟은 고유가에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유사들은 사상 최고치의 정제마진을 기록하고 있어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대하고 있다. 석화업계는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에틸렌 등에 나가는 비용 부담이 상당해 고전을 겪고 있다.

1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정제마진은 배럴당 22.87달러, 6월 둘째 주에는 배럴당 22.12달러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구매비와 수송비·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유업체들의 수익성 지표로 꼽히기 때문에 정제마진이 높을수록 정유사 실적이 커진다. 통상적으로 배럴당 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과거 정유업계 황금기로 불리던 2016~2017년에도 10달러 선을 넘지 못했던 정제마진을 떠올려 볼 때 지금은 그 어떤 시기보다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유사들의 정제마



GS칼텍스 여수 정유 공장 전경.



/GS칼텍스 LG화학 여수 NCC 전경.

/LG화학

진은 지난 2분기 동안에도 10달러 후반대에서 20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2분기 실적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유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업계를 강타했던 시기를 벗어나 이제야 그 적자분을 막았다고 본다"라며 "2분기 실적 예측도 좋게 나오고 있지만, 번 돈은 탈탄소 정책에 발맞춰 탈석유 사업에 투자해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정제마진이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국제유가는 국제적인 정세 변화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어떤 업계도 선불리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유업계와 반대로 석화업계는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상승 때문에 실적하락이 이어질 확률이 크다. 화물연대 총파업 장기화하면서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을 중지할 상황까지 일어날 뻔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극적타결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럼에도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석유화학업계는 운송 차질로 인해 하루

9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총파업 전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하루에 출하한 제품 물량은 7만4000톤 규모였지만, 화물연대 파업 이후 출하량은 10%대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파업이 끝나 운송 부분은 모두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NCC 가동이 중단되면 하루 매출 손실액만 수천억에 달하며 고유가 시기에 앞선 데 덮친 격으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이번 주를 넘었다면 실제로 NCC를 멈춰

야했을 상황이었다"라며 "파업으로 출하 문제가 일어나긴 했지만, 물류를 마비시킬 만큼은 아니었기에 피해 복구에 열심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의 고민은 다시 고유가 상황으로 쏠렸다. 또 다른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다만 세계적으로 공급·수요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마진을 낮춰 대응 중"이라며 "실적 개선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비싸게 공급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손실을 전가하는 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해 오는 9월 말까지 나프타에 현재 부과되고 있는 0.5%의 조정관세를 면제해 주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0.5%인 관세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는 당장 2분기 실적을 높일만한 방법을 모색하면서도 중장기 발전을 위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설 전망이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제품의 물성을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향후 친환경 소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지갑 닫은 中... 뷰티기업, 북미 등 눈 돌려

중국, 봉쇄·통제 잇따르면서
도시 상업활동 마비... 지갑 닫아
아모레퍼시픽·애경산업·네오팜 등
북미·동남아 등 해외 공략 다각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현지에서 실적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른 국가로의 진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중국은 현재 주요 경제권에 해당하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상업도시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풀어놓았던 상하이 봉쇄를 지난 11일 하루 재봉쇄했고, 앞서 4월에는 상하이와 일부 지역을 준봉쇄 혹은 전면 봉쇄하면서 정책에 따라 경제 상황이 유동적인 상태다. 제로코로나 정책을 도시 상업 활동 마비에 가까운 수준으로 펼쳐 불안해진 중국인들이 예방성 저축을 늘리며 지갑을 닫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과 사드 사태 이전부터 중국 수출로 인한 해외 매출에 상당 부분 이익을 내고 있었던 국내 뷰티 기업들이 최근 다른 나라로 해외 사업 전략을 세우고 진출해나가고 있다.

15일 국내 대표 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북미 공략 본격화 계획을 드러냈다. 아모레퍼시픽은 "코로나19 여파 등의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미래 성장 기반을 쌓기 위해 북미 등 해외 시장에 투자를 지속해왔다"면서 "북미 사업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2021년 BTS 미국 콘서트장에서의 아모레퍼시픽 부스. /아모레퍼시픽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북미 매출은 모든 브랜드의 고른 성장과 함께 비중이 높은 설화수와 라네즈가 고성장을 하며 실적 향상을 견인했다. 설화수와 이니스프리는 세포라와 같은 멀티 브랜드숍 채널과 이커머스 중심의 영업 기반을 확장 중이다. 라네즈는 아마존 등 입점 채널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력 상품인 립 카테고리 신규 성장 기회를 발굴하며 매출 볼륨을 확대했다.

포브스, 하퍼스 바자, 인스타일 등의 뷰티 주요 매체들과 유명 인플루언서 등이 함께하는 대외 미디어 홍보와 콘텐츠 태그 등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북미 채널 다각화와 더불어 영업 기반 확장 및 매출 볼륨 확대를 노린다. 이밖에 동남아시아 지역인 아세안에서도 채널 및 브랜드 믹스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국

가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출을 확대해왔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해외는 국내 소비자와 화장법 등이 다른 경우도 많으며, 현지 매장이나 멀티 브랜드숍 입점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에 애경산업 대표 브랜드관이 입점하는 형태로 진출의 첫걸음을 떼고 있다. 이후 반응을 봐서 오프라인 채널의 확장도 이어 나간다. 애경산업은 일본의 큐텐재팬, 동남아의 쇼피 등으로 입점을 꾀하며 주요 제품 카테고리 상위권에 올려놓는 등 성과를 낸 뒤 로프트 등의 오프라인 채널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스킨케어 및 더마 브랜드 전문 화장품 회사 네오팜도 일본에 진출한 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큐텐재팬에서 열린 연중 가장 큰 행사 메가 세일에서 자사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리얼베리어 제품이 출시 하루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리얼베리어는 메가 세일 기간 전년 동기 대비 6.5배 이상 매출이 신장한 것으로 집계되며 진출 이후 빠른 속도로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리얼베리어, 제로이드는 계절풍이 부는 열대 기후 속 피부 케어에 맞아 태국 시장에 진출한 지 1년여 만에 현지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자 네오팜의 아토팜, 더마비, 더마트로지 등도 그 지역 유통 채널 MD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정식 진출 중이다.

네오팜은 "네오팜을 비롯해 화장품 업계 대표주자들은 올해 해외 유통 플랫폼 입점을 비롯해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는 등 세계 시장 공략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산업생산 한숨 돌렸지만 경기회복 '미지수'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봉쇄 완화후 산업생산 예상밖 회복
소매판매 석 달 연속 마이너스 기록
실업률 개선됐지만 목표치 밑돌아

지난달 중국의 경제지표가 반등에 성공했다.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들의 봉쇄가 완화되면서 산업생산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예상보다 좋은 성적표를 내놨다.

다만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절대적인 수치로는 향후 경기 회복을 점치기에는 여전히 미진하다. 이와 함께 경제를 희생하며 고집한 '제로코로나' 방역에도 코로나19 재확산이 다시 시작됐고,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을 통틀어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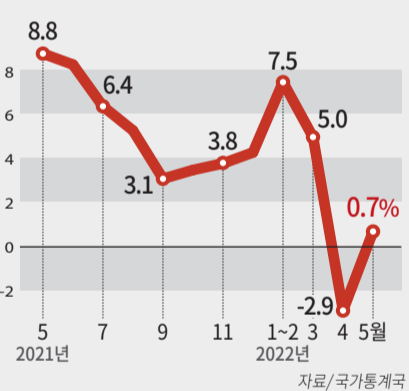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7%로 집계됐다. 시장예상치 -0.8%를 웃돌면서 전달 -2.9%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상하이가 도시를 전면 봉쇄하는 와중에도 일부 물류 정상화에 나선 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데이터 산출을 위한 41개 업종 중 25개, 617개 제품 중 256개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석달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지만 전달 -11.1%에서는 대폭 개선됐다.

고정자산투자액은 전월 6.8%에 못 미치는 6.2% 증가에 그쳤다. 올해 1~2월 12.2% 대비로는 반토막 수준이다. 중앙 정부가 경기 회복과 고용을 위해 인프라 등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정부들이 따라주질 못하는 모양새다.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지난달 중국 경제는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주요 지표가 소폭 개선세를 보였다"면서도 "대의 환경은 더 복잡해지고 심각한 상황이며, 국내경제는 여전히 회복을 위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업률은 5.9%다. 전월 6.1%에서 소폭 개선됐지만 연간 목표치인 5.5%에는 못 미쳤다. 특히 16~24세 실업률이 18.4%로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위축됐고, 이는 경제 활동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가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